

Deaf Ministries International

2024년 여름

국제 청각 장애인 사역을 위한 분기별 뉴스레터

마부하이 필리핀!

6월에 필리핀에서 DMI 리더, 목회자, 전도사, 교사, 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2주 동안 제자훈련, 계획짜기, 격려,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군나르와 마티스는 노르웨이에서, 허인영 국제이사는 한국에서, 토니는 우간다에서, 앤드류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바오, 바콜로드, 리가오 지역에서 현지인들도 함께했습니다.

다바오

첫 번째 방문지는 다바오로, 글렌 와이레이와 그의 아내 에블린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글렌은 다바오에 새로 이전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며, 70명의 농민(일부는 지교회에서 방문)이 모여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허인영 목사가 설교하고 각 리더들이 간단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토니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인들이 예배에서 실제로 어떻게 춤을 추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 점심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140명의 손이 열렬히 '수다'를 떨며 교제에 참여하는 모습은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영 설교에서



다지고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를 훌륭하게 준비한 알버트와 김, 그리고 매일 모두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을 요리해준 김과 세 명의 천사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학교가 끝난 다음 일요일, 모든 참석자들은 알버트가 이끄는 임마누엘 농아 바콜로드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함께했습니다. 마티스와 토니가 설교하고 축제의 만찬을 즐기며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20년 동안 바콜로드에서 충실히 봉사해 온 알버트와 김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바콜로드



바콜로드에서 일주일간 열린 아버지 마음 A 학교는 이번 여행의 중심이었습니다. '맨발의 설교자'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군나르와 필리핀에서 이 학교를 처음 시작한 허인영, 마티스가 주축이 되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Gunnar, Andrew, Tonny, Matthijs, 인영 & 글렌 목사
아버지 마음 학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도록 격려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의 교제 시간은 시끌벅적하지는 않았지만 즐거웠고, 우정을



마닐라

한편 앤드류는 마닐라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은 엠마누엘 교회 사역 인터내셔널에서 연설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필리핀에서 DMI와 협



력하는 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필리핀의 교회가 저희 사역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첫 번째 사례가 되어 필리핀이 한국처럼 '자원받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의 전환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리가오

필리핀의 미소와 아도보가 끝나지 않은 앤드류와 마티스는 다시 만나 리가오에 있는 비콜 농아학교(이전에는 그리스도의 피셔맨 학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농장과 학교의 모든 확장 시설을 시찰하고 네빌이 일생 동안 이룩한 엄청난 업적에 함께 감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DA의 팀워크는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쌀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교사들과 교장 선생님이 음료를 따르는 동안 닭 내장을 발라내는 목사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기꺼이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DMI의 리더십은 2026년 필리핀에서 개최될 다음 국제 컨퍼런스가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마음 A학교 [사이드/첨부 기사]

아버지마음 학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일주일간의 세미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용서, 치유, '아들됨'이 가르침의 중심 요소입니다. 일주일이 끝나면 참석자들은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도록 권장됩니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농인들은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랍니다. 치유는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간다에서 온 한 팀원은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던 어린 시절에 대한 강력한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팔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이 팀원은 아버지마음A학교에 다니면서 아버지에게 마음을 달았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버지와 멋진 화해가 이루어졌고,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필리핀 학교의 많은 참가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학교가 끝난 다음 날, 참가자 중 한 농 청년은 감격에 겨워 자신이 편지를 건네며 용서를 구했을 때 청년 부모님이 울면서 자신을 껴안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그의 부모님은 외출하여 그에게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학교 교사인 한 목회자의 아내는 자신이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감격에 겨운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이 계시를 주시기 위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첫 번째 농아학교를 마친 후, 현지 농아 목회자들은 자국에 농아를 위한 더 많은 아버지마음 학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액 대부금이 필리핀에 도달하다

DMI의 소액 대출 프로그램이 이제 필리핀에 도달했습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이 프로그램이 이제 필리핀의 농민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는 잡화점, 햄버거 가게, 돼지고기 가게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초기 운영에는 13개의 사업체가 승인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얀마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 여러분은 현재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에 관한 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Pa-Lian은 양곤의 생활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고합니다. 폭우에도 불구하고(지금은 우기입니다) 교회 출석률도 좋고 성도들의 사랑도 강하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와 두 번째 교회가 있는 북쪽은 상황이 다릅니다. 집들이 폭격당하고 불타거나 불도저로 파괴되었으며, 학생들의 가족들이 폭탄이나 지뢰에 의해 총에 맞거나 폭파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도로 탈출했거나 미얀마 북부의 정글에 숨어 있습니다. 현재 24명의 학생(그리고 돼지 2마리!)이 교사 및 지원 인력들과 함께 학교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가가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미얀마 캠페인을 진행한 3일 동안 거의 25,000 호주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 정도면 학교를 당분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과 장비가 마련될 것입니다. 아낌없이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민 가족의 안전과 미얀마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디디에와 노투안 - 황금같은 기회

필리핀의 국제 농민 연구소에서 7개월간의 성경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학보다는 성경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기 훈련으로 농민들에게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참가자들이 사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훈련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수원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수화를 통한 읽기'(문자 및 구어 해석), '의미를 통한 수화'(문법 기반 수화), '위치 및 방향 참조'(화자, 청자, 주체의 위치 강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르완다의 ICDR-키쿠 키로 회원인 디디에 시나쿠베샤와 미얀마의 젊은 학생인 노투안 세우가 선발되었습니다. 디디에는 르완다를 방문 중이던 강승호 DII 대표의 추천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노투안 세우는 한국에서 온 허인영의 추천을 받아 학교까지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끔찍한 전쟁의 와중에도 노투안이 미얀마로 돌아가기 전에 이 교육에 참석하여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집트 살아가는 방법 배우기



이집트의 선교 동역자들은 3세에서 14세 사이의 농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쉽고 간단한 방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야곱, 요셉, 요나, 침례 요한 등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각 이야기는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교훈은 무슬림 국가에서 종종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농아 기독교 어린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임은 보통 기도로 시작하여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른 다음, 지난 주 이야기를 복습하고 이번 주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게임, 색칠하기, 그림 그리기로 함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선교 리더인 사헬은 주일학교 리더들과 정기적으로 온라인 훈련 모임을 열어 그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농인 자녀 2명, 청인 자녀 1명)를 둔 한 어머니는 주일학교 모임활동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앉아있기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집중력과 흥미가 부족했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날이면 몹시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일학교 모임에서는 아이들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흥미도 높아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서도 신나게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뻐합니다.



탄자니아 힘차게 성장하는 사역

탄자니아 농인 사역(DAT)은 가장 강력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조셉히자가 이끄는 13개의 교회, 12개의 친교모임, 수많은 교육 및 고용 프로젝트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57명의 농인이 전국에 있는 교회에 가입하여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중 18명은 5월 빅토리아 호수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아래/오른쪽 기사 참조). 나머지는 침례 훈련을

마친 후 다음 분기에 침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새 신자들은 이미 복음 전도자 역할을 맡아 젊은 신자와 노인 신자 모두의 신앙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전역에서 실시하는 리더십 훈련은 전도자와 지도자들의 영적 삶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이파카라, 모로고로, 우바루쿠, 음베야의 교회에 비전과 희망, 믿음을 심어주고 교인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켰습니다.

키고마와 이파카라에서는 3개월 동안 지역 사회에 전도자를 파견하여 15명의 농인 가족, 19명의 농인 친구, 그리고 이전에 연결되지 않았던 7개의 농인 모임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음베야 교회와 우바루쿠 교회도 마두가 목사의 지도 아래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인 지역사회에서 농인과 농인 교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농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18명의 소년이 침례를 받다!



벤과 베로니카 부인자 부부는 많은 농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재능 있는 전도자입니다. 탄자니아 북부 호수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들은 두 개의 교회와 여러 학교 교우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베

로니카가 이끄는 브위루 남자 중고등학교에서 18명의 청소년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침례를 받은 소년들은 하마 떼와 악어 떼가 헤엄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고, 모두 살아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중생과 새로움의 씻음을 통해 구원받은 이들의 새로운 삶을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세상에서, 이 젊은이들이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걸기로 결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침례를 축하하며,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허인영 <heoinyong@hanmail.net>

은행계좌

국제농아인선교회

국민655201-01-459998

인터네셔널 사무소

Deaf Ministries International
PO Box 395
Beaconsfield Victoria 3807
Australia

전화 +613 5940 5431

대표이메일 info@deafmin.org

www.deafmin.org